

제 23 장 사도 행전 Tape #8112

우리가 성경을 통한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2 번째 장에서 바울은 군중들에게 연설할 수 있도록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라는 총대장에 의해 보호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다마스쿠스에 있는 믿는 자들을,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긴급히 체포하여, 묶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조우하여 기독교로 회심한 그의 개인적인 간증을 그들에게 전하므로, 그들은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라마 같은 회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나눌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가도록 어떻게 경고하셨던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너무도 친숙하게 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확신시킬 수 있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주님과 논쟁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기에 너를 여기서 멀리 보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란 단어는 선동적인 단어였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단지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만이 구원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대인만을 위해 구원을 기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구원 받기를 원한다면, 구원 받기 위하여 개종하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논리였는데, 지금 바로 이 개념이 초대교회의 기독교 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방인들로 유대인이 되고, 할례를 받으며, 모세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던 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앞에서 첫 번째 교회의 공회의를 다뤘는데, 이는 이방인의 믿는 자가 율법과 무슨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공회회는 이방인들이 구원될 수 있으며, 또한 이방인으로 그대로 남을 수 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유대인으로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되기 위하여 반드시 모세 율법의 전통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유대인들로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나눈다는 관념은 실제로 분명 거의 비난을 받을만한 것이었기에, 바울이,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언급하자, 유대인들은 공중에 먼지를 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옷을 찢었고, 그를 죽이기 위해 날카롭게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대장은 바울을 안토니오 요새의 안전한 곳으로 데려와, 그는, 그들에게 명하여,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그를 채찍으로 치도록 했는데, 이는 바울이 히브리어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히브리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단지 바깥에서 폭동이 있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소동을 저질렀는데, 네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감각적으로 억지 명령을 내려, 자기를 채찍으로 치려하는, 이미 칠 준비를 마친 백부장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울은, 당신이 죄도 정해지지 않은 로마 시민을 치는 것이 법에 맞느냐? 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 그를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총대장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자, 총대장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는, 그렇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고 대답했으나, 그 총대장은,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다고 말하며, 너는 얼마나 주고 그 시민권을 샀느냐? 고 묻자,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바울에 대한 혐의를 씌우기 위해 청문회를 회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예루살렘의 전체 종교 회의, 즉 대제사장과 공회회의 모든 회원들이 함께 모였고, 바울을 데려다 가운데 세웠습니다.

1 절 “바울이 공회의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에 다하여 살았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 공회회에서 형식적인 연설의 형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흥미롭습니다. 거기 공회회에서 연설하는데 사용하는 공적인 규칙은 이런 의례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재판관에게 연설할 경우, ‘친애하는 재판관여!’ 라고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혹은 이런 말도 어찌면 사용할 터인데, ‘가장 훌륭한 분,’ 등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인사도 있는데, ‘가장 거룩한 공회의 회원님!’ 과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형식적 인사를 사용하는 대신에, 오히려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만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당신들의 형제란 말이요, 내가 여러분의 한 부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도 이 공회회의 회원이었죠. 내가 한 때 이 공회회의 일원인 때가 있었던 말이죠. 그래서 그는 매우 비형식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말하며,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의 선포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에 보내는 그의 서신에서, 유대인으로서 그의 열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에 대한 의에 관해서라면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흥미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일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에서 놀랄만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날까지 하나님 앞

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고 했던 것입니다. **2 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악당이었습니다. 그는 뒤틀린 사람이었고, 정도를 벗어난 악한 사람이었으나, 사람들을 지배하는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령하며,”** 바울의 이 요구에 대해, 그는 그것을 무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3 절 “사울이 이르되 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율법에 따라 나를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그 당시에, 물론 율법 아래서, 유대인은 사체나 사체를 만진 어떤 것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들, 모든 나라 각처에 돌로 잘라 만든 무덤이 있었는데, 수년이 지나면 그들 중에 어떤 것은 반쯤 숨겨지게 됩니다. 어떤 것은 아예 묻혀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가로질러 가다가 부주의로 넘어지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면, 만약 그것을 만졌다면, 여러분이 부정하다고 생각될 것이므로, 회당에 혹은 성전에 들어가려 하기 전에 정결 의식을 거쳐야만 합니다. 사체와 접촉하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은 만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지는 것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은 흰색 도료로 그것에 색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밖에 서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이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분은 바리새인들에 관해,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마 23:27). 그들이 밖으로는 매우 좋게 보였다는 것인데, 모든 것을 하얗게 칠했으나, 안쪽은, 그 분은 말씀하시기를, 그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에 의해 사용된 이 용어를 뽑아서 대제사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다, 너 회칠한 무덤아! 왜냐하면 네가 바로 그런

자이기 때문이다. 네가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으로 여기 앉아서 율법에 반대되게 나를 치라고 명령한단 말이나? 음, 네가 율법을 깨뜨리는구나! 네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구나! 그것은 그 때 매우 사실이었기에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관한 어떤 오류보다 한 진실을 강조하는 것은 항상 더 나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에 대해서 모든 종류의 거짓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분명 거짓말이지만, 만약 내가 어떤 잘못을 행하고 있고, 여러분이 진리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그 때 여러분은 실제로 화를 내고, 그것에 분개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4 절 “결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매,” 5 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는 기록된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하더라.” 출 22:28 에서 찾아지는데, 그래서, 바울은 사과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욕체의 가시가 눈의 문제라는 원칙을 증명하는 한 부분으로 이성경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욕체의 가시를 언급함에 있어, 실제적으로 보는 것의 문제였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눈을 쉬지 않고 움직이도록 하는 동양적인 질병 중 어떤 종류를 가졌고,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항상 그에게 희미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등하게 갈라디아인들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 그가 이야기했으므로, 그는 그들에게 보내는 그의 서신에서 지시하는 것같이 보였는데, 그는, 너희들 중에 어떤 이들은 너희들의 바로 그 눈을 내게 주는데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시력의 문제였을 것이라는 지시로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의 끝 부분에서 그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쓴 편지가 얼마나 큰지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것을 자신이 썼다고 했기 때문에, 글자의 크기를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들은 구술되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그 자신이 썼지만, 자신이 집필하는데 시력의 빈약함 때문에 큰 글자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욕체의 가시가 시력의 문제였다는 그 원리에 있어 더 깊은 관점이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이 단지 일종의 말로 하고 있는데, 사람은 아나니야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좋아한다고 할 만큼, 이 아나니야가 이같이 지독한 평판을 가졌다는 것으로, 여기서 바울이 빈정거림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약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의 종류가 일종의 냉소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시력 저하를 더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대제사장에 대해 빈정거리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면,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말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사과를 합니다.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내가 잘 몰랐소, 형제들아! 라고 말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친숙한 율법을 인용하는데, 그것은, 백성들을 치리하는 자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6 절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일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로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불려와 심문을 받노라 하니라.” 7 절 “그가 이같이 말하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니,” 8 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둘 다 있다 시인하기 때문이라.” 9 절 “거기서 크게 떠들 때에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전혀 악한 것이 없도다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을지라도 모르니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여,” 10 절 “큰 다툼이 생기니 총대장은 그들이 바울을 끌어 당겨 갈기갈

기 찢을까 염려하여 군사들에게 명령하되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강제로 빼앗아서 성채 안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래서, 바울이 자신은 바리새인이라고 선언함으로, 또 다른 불안요소를 만들었습니다. 부활에 있어 그의 소망 때문에, 그는, 내가 체포되는 등을 말하자, 이는 즉시 모든 바리새인들을 자기 쪽으로 오게 했으나, 그를 대항하도록 사두개인들을 더 분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들은 서로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자유주의자로 불렸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로 불렸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인간주의라면, 바리새인들은 영을 믿는 자리에 있으며, 그들은 천사를 믿고, 죽음 뒤의 삶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오직 세상만을 믿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니,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비극이지만, 이 독특한 시대에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을 통제했으니,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선언하며, 그들의 논쟁의 중심으로 옮겨 갔습니다. 부활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전[whole] 상황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논쟁이 발생했고, 바울은 그것의 논쟁 중간에서 바로 잡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갈기갈기 찢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군대의 총대장, 클라우디우스 루시아가 바울을 위해 중간에 끼어들어 중재를 했습니다. 군사들은 그를 싸우는 장소에서 저쪽으로 데리고 가서, 성채에서 안전한 곳인 감옥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자, 22 장으로 가보면, 이전 장을 말하는데, 바울이, 17 절에서 그의 회심의 경험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무의식 상태가 되어 그 분이 내게 이르시되,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이는 나에 대하여 내가 증거 하는 것을 그들이 받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주여 내가 모든 회당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리고 주의 순교자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고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날 학교 친구들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복음을 나누고 싶은 욕구를 가졌던 것입니다. 만약 꼭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었다는 믿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약 17 년 뒤의 이야기이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의심 없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그 소망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기회는 왔으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들이 네 간증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처럼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 다음 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있었고, 지도자들과 나눌 기회를 다시 가졌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이 많은 동료들은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가말리엘 문하에서 함께 배웠던 대다수의 많은 친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 듣고는, 그들이 그를 알아보았으며, 그가 매우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논쟁의 중심은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바울의 변명 때문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전체적인 것은 큰 대결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으로 돌아와 있고, 아마도 사도의 생활에서 매우 낮은 지점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를 이루고,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 해 동안 꿈을 꾸어왔고 구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왔으나, 그것은 전적인 재난이었으며, 전적인

실패였습니다. 거기 감옥에서 그는 아마도 마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장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영광스럽고, 유명한 사역이 아닌가! 영광스럽지 못하게 끝나고 마는 사역이란 말인가!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의 형제, 유대인들에 의해 너무도 철저히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가 이같이 깊고 열렬한 사랑을 가졌던 자들이고, 그리스도에 도달하기를 갈망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11 절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바울은 기가 죽었습니다. 그 분은 바울을 힘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을 내라!) **“이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 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거 하여야 할 것임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증거 했던 것으로 인식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분은 여러 해 전에 그에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이 네 증거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논쟁하기를, 그들은 나를 알고 있어요, 그들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단 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래, 지금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 하였지,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낙망과 지난 실패 속에 다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종의 낙망 속에 뒹구는, 꼭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그것을 불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단은 그와 같은 것을 이용합니다. 그는 다소 당신 자신에 대해 쓸모가 없다고 당신이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끝장입니다!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에, 계속해야 하는 사역에 소망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하지만, 네가 나를 증거 했지! 라고, 주님은 바울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분은 그에게 장래의 소명을 주시기 위하여 과거의 암울 밖으로 그를 데려가십니

다. 다른 말로 하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라! 네가 해야 할 일이 여기 있어,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 했지, 그것은 완전한 큰 실패였지, 그러나, 그것이 옳아, 네가 증거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침에 언급했는데,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 분에 대해 증거하기를 요구하실 뿐입니다. 증거에 의해 결과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혹은 사람이 그것을 믿든지, 그것들은 사실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침에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후,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 남자는 나에게 자기 명함을 주며, 자기는 쿠웨이트 전체에서 유일한 교회, 유일한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것을 알지 나는 모르는데, 최근에 한 사람이 자기 교회,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물론 회심이 매우 드문 곳이죠.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가 있도록 한 이유는 쿠웨이트 안에 거기 외국인들을 단지 일종의 양육하기 위해 그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지방의 쿠웨이트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지금 배교로 정부관리에 의해 책망을 받고 있으며, 위협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쿠웨이트 정부에 의해 죽음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배교라고 부르니까요. 그는 바로 지금 쿠웨이트 법원으로부터 심문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그것에 대해 나누었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 보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증거를 하기 때문에 보상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있어 증인이다! 사람들이 그 증거를 믿을지 모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증거를 하는 것으로 보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증거를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보상을 가지고, 혹은 당신의 요구를 가지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기를 요구하신다고 사람들은 말할 때가 있으나, 그 분은 우리더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성공 중심의 성향이 있어, 만약 사람이 우리의 증거를 거절하면, 우리는 낙심이 되고 말며, 기가 죽어버립니다. 화가 납니다! 우리는 비참하게 됩니다. 당신이 알지만, 내가 증거를 했는데, 그들이 단지 재미로 느끼며, 그들은 지금 웃고 있는 등등입니다. 우리의 증거가 그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온통 실망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네가 증거를 했어! 라고 말씀하셨으며, 그것이 네가 할 것으로 요구받는 전부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 했고, 그래서,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반드시 증거를 해야만 하는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닫고 계시며, 그것들을 못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장래를 향하여 그를 인도하십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해 생각하는 암울을 벗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며, 앞을 향하여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빌 3:14),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쫓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과거는 한쪽에 두고, 하나님께서 장래 가지신 것을 위해 도달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낙심하고, 과거에 붙잡혀 있는데, 그들은 한번 시도해 보았고, 그리고 실패했다는 것 외에는 결코 앞으로 가 본 적이 없으니, 그들이 단지 일종의 포기였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증거 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증거에 있어 신실하도록 하라! 는 것을 인식하거나 깨달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부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도 보지 못하고 수년 동안 선교 사역지에서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은 잭 앤더슨이고, 교회는 저 아래쪽 볼리비아에서 사역하는 그를 도왔습니다. 잭은 7년 동안 사라노이아 인디언 가운데서 사역을 했는데, 그는 정글 속으로 들어가 유목민인 이 종족을 발견했고, 그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 세운 마을로 돌아오면서 그는 그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식물을 심고 어떻게 토지를 경작하고, 어떻게 결핵을 제거하는가를 가르쳤던 곳인데, 내가 의미하는 것은, 크게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볼리비아의 푸른 언덕의 나라 정글을 헤매며 방랑하는 야만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을을 세웠고, 그들이 정글 속에서 약탈한 것들로 살아갔었을 터인데, 인디언들을 발견하고서, 이곳에 돌아와 살도록 그들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 가운데서 7년 동안을 수고했으나, 그들 중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토종의 소녀 하나가 예수를 영접했고, 그녀를 통해 하나님은 전[whole] 종족에게 다가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인내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한 회심자들도 보지 못한 채 전 생애를 사용하곤 합니다. 자, 그들이 하늘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이 알다시피, 아주 좋지 않구나! 라고 말하실 것 같나요? 너희가 너희 전[whole] 생애를 정글에서 다 써버리고, 한 사람도 영접치 못했구나! 그래서, 말인데, 여기서 너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알겠지? 라고 말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회심한 숫자에

따르거나, 혹은 당신의 증거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응하는 사람에 따라 보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증거를 하도록 요구되고, 당신의 증거 때문에 보상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그래,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 했지! 라고 말씀하셨으며, 지금 로마에서도 역시 나를 위해 행해야 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바람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인들에게 서신을 썼을 때(롬 1:13),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여러 차례 작정했으나, 아는 것까지 방해로 받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해서,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가 있는 자나 없는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며,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울의 바람이었고, 주님께서 이 바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신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것을 알고 지금 그가 이 편지를 로마인들에게 썼다는 것은 흥미로운데, 이 장의 끝에 보면, 그가 가이사랴로 끌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 2년 넘게 가이사랴에 있을 것인데,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서신을 썼다는 것은, 그가 가이사랴에 있었을 동안이었습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방해로 받고 있었으나, 당신이 알다시피,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또한 로마에서 나를 증거 할 것이라! 그래서 그런 후에, 바울은 거기서 얻게 될 것에 대해 아무런 의혹도 결코 갖지 않았습니. 긴 법원의 과정과 전체의 일에서, 그는, 당신이 아는 대로, 이 날들 중에 어느 하루 로마로 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로마에서 증거를 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그가 배에 있어, 소망이 없었을 때, 이런 것과 같은데, 그들이 이 폭풍우로부터 언젠가 면하게 될 것이라, 그가 카이사르를 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서 끝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 가운데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하여 자기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이르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니,” 13절 “이 음모를 꾸민 자가 마흔 명이 넘더라.” 그래서, 그들 중에 마흔 명이 넘는 자들이 함께하여 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서로 서약했는데,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할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 마흔 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이 배고파서 죽었을까요? 아니, 나는 그것에 대해 의심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들은 아마도 그 서약을 깨버렸을 것인데, 아마도 자신들을 저주 아래 놓았을 것입니다.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고, 이 모의를 만든 사람이 마흔 명이 넘습니다.

14절 “그들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박하여 큰 저주 아래 두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15절 “이제 당신들은 바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철저히 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총대장에게 알려 내일 그를 당신들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소서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려고 다 준비하였나이다 하매,” 그래서, 그들은 이 고약한 음모에 수제사장을 끌어 드렸습니다. 물론 그가 이처럼 온통 불법적인 것들에 설득당할 수 있던 그런 종류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는 진짜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봄을 우리는 봅니다.

16 절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 함을 듣고 가서 성채 안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고하니,” 그래서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봄은, 그의 누이의 아들, 즉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것인데, 바울이 가족에 대해서 한번도 언급한 적은 없으나, 여기서 누가가 그의 누이의 아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그들이 이 음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서, 성채 안으로 들어가, 그의 아저씨에게 그가 들었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7 절 “이에 바울이 백부장들 중의 하나를 불러 이르되 이 젊은이를 총대장에게 데려가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노라 하매,” 18 절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총대장에게 가서 이르되,” (이것은 백부장이 총대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젊은이가 대장께 무언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며 데려다 주기를 청하더이다 하니,” 19 절 “이에 총대장이 그의 손을 잡고 은밀하게 한 쪽으로 가서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나 하매,” 20 절 “그가 이르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관하여 무엇인가를 좀더 철저히 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시기를 대장님께 청하자 합의하였으나,” 21 절 “당신은 그들의 말에 따르지 마옵소서 이는 그들 중에 마흔 명이 넘는 자들이 맹세로 자기 자신을 속박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기로 하고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니라 지금 그들이 다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22 절 “총대장이 젊은이를 보내며 분부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음모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의 조카가 그것을 얻어 들은 사실이 총대장에게 경고가 되었는데, 로마인의 정의는 감탄스러운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인 바울은 그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여 총대장이 이 모의를 들었으나, 의심할 것 없이 조금 뒤에, 유대인들은 안으로 들어와, 당신도 알겠지만, 내일까지 바울을 공회에 데려오실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가 의미했던 것을 단지 우리는 찾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그래서 총대장은 정말로 이것이 음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3 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세 시에 가이사라에 갈 군사 이백 명과 말 타는 병사 칠십 명과,” (기병을 말합니다.) “창병 이백 명을 준비하라 하고,” 그래서, 밤 세 시에 바울을 호송할 사백 칠십 명의 군사들과 밖으로 나갔는데, 이는 어둠을 틈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거죠. 로마 주둔지역의 수도는 가이사라였는데, 로마 총독이 있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 세 시에 사백 칠십 명에 의해 호송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타고 갈 짐승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명령은 총독 벨릭스에게 안전하게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24 절 “또 바울을 태워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보내도록 짐승을 주라 하고,” 25 절 “또 다음과 같이 편지를 쓰니 곧,” 26 절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는,” (군대의 총대장, 혹은 사령관의 이름입니다.)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27 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되었을 때에 로마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출하였나이다.” 28 절 “유대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고소하는지 내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그를 데리고 갔더니,” 29 절 “그를 고소하는 바가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뿐이요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그에게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30 절 “또 유대인들이 숨어서 이 사람을 기다린다 함을 내가 전해 들 곧 각하께로 보내며 또 그를 고소하는 자들에게도 각하 앞에서 그에 대하여 고소하는 바를 말하라 명령하였나이다 평안하옵소서 하였더라.”

31 절 “이에 군사들이 명령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자 안디바드리는 사마리아 산맥이라 부르는 곳의 기점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는 여행길은 약 96km 정도이고, 안디바드리는 가이사라에서 샤론 평야를 거쳐 약 32km 쯤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는 산길로 약 64 나 55km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이곳이 유대인들에 의해 주로 점령되어

있어서, 사백 칠십 명의 군사들은 우발적인 사고에 만전을 기해야만 했습니다. 32 절 “이튿 날 기병들을 남겨 두어 바울과 함께 가게하고 성채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안디바드리에 도착했을 때, 사백 명[이백 명의 군사와 이백 명의 창병]은 돌아갔고, 기병만이 바울을 계속해서 가이사라로 호위했습니다.

33 절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서신을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세우니,” 이 벨릭스라는 친구는 재미있는 친구인데, 노예로 시작한 인물이에요. 로마에서, 그의 형제 파에라스와 자랐고, 그들이 아이였을 때, 단지 이웃 사이로 지냈습니다. 어린이의 놀이-그들이 어른의 행한 것과는 크게 관계없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아이들로서 함께 지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어울렸을 때, 클라우디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사람도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소년들은 종종 함께 뛰어다니고, 함께 놀이도 하며 지내기도 하여, 비록 클라우디우스가 귀족적인 배경이 있었고, 이들 친구들은 노예의 아이들이기 했지만 그들은 좋은 친구, 좋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말입니다. 나중에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그는 이 어린 시절의 우정을 기억해서, 그는 그들의 노예 상태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 뒤 나중에 파에라스의 설득으로, 그를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총독으로 만들었고, 그는 그것을 유다를 통치하는 것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나 벨릭스가 여전히 마음으로는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업무를 남용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후 딱 2년 뒤에, 다음 장에서 볼 것이지만, 면직되었습니다. 네로가 승계하자, 그의 실정등과 부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는 동안조차도,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그가 바울을 풀어주는 대가로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이 어떤가를 찾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드루실라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지도자의 아내였을 때, 그가 그녀를 보았고, 그 여자와 사랑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마술적인 힘을 가진 자를 고용하여, 가서 자기와 결혼할 수 있도록 그녀를 설득하게 하여, 그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즉시로 벨릭스의 아내가 되었고, 그 여자가 요한을 죽이도록 명령한 아그립바 1 세의 손녀였습니다. 그 여자는 아그립바 2 세의 누이이며, 또한 아그립바 2 세는 물론 드루실라의 오빠입니다. 비록 이미 벨릭스가 드루실라와 아무 상관도 없게 되기는 하였으나, 그 시간 즈음에 바울이 그를 만났습니다. 분명히 부도덕한 관계이며, 매우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과 관련한 것을 읽는데, 바울이 의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절제와 닥아 올 심판에 대해 증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그는 매우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와 닥아 올 심판에 대해 그에게 증거를 하자, 그는 흔들렸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네가 알지만, 내가 다시 너에게 들겠노라! 고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바울을 부르기는 했으나, 마침내 로마 정부에 의해 소환되었고, 그는 권력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 벨릭스에 대해 알만한 작은 배경입니다.

34 절 “총독이 편지를 읽고 바울이 어느 지방 출신인지 물어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고,” 35 절 “이르되 너를 고소한 사람들도 오거든 내가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의 재판정 안에 그를 두라 명령하니라.” 그래서, 23 장 끝에 왔습니다.

지금 누가 바울과 함께 있으며, 2년 이상 바울은 가이사라의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와 함께 있습니다. 누가 자기의 복음서를 썼던 것이 이 기간 동안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뜻하는데, 왜냐하면 누가의 복음에서 그가

대부분의 주요 등장인물과 면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마리아를 면담했고, 예수님 생애의 이야기를 씀에 있어 많은 주요 등장인물과 면담을 했는데, 이는, 마리아의 견해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천사의 방문과 모든 것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은, 특히 예수님의 탄생, 어린 시절과 관련한 흥미로운 통찰력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이야기하며 취했던 이들은, 이 당시, 의심할 것 없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살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노트는, 일반적인 노트 형태로 보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야고보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기억하겠지만, 음 거기 바울에게는 믿는 수천의 유대인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을 원하고, 그들은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들어서 오려고 하며, 질문하려고 할 것인데, 우리는 당신이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성결의식과 기타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두 젊은이를 지원하기를 원하오.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질문하면, 우리가, 아니오, 바울은 여전히 율법을 주목하고 있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는 선한 유대인이며, 그가 이 친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평화와 형제들과 평화할 목적으로 행할 것에 동의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 수천이 있었으나, 그들 중에 아무도 바울의 변명에 분연히 일어서지 않았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전에서 그를 죽이기 위해 때리려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은 어디에 있었던 말인가? 당신이 알다시피, 나중에 로마에서 그의 경험에 관하여 쓴 것과 네로 앞에서 다시 나타나서, 바울이 말했지만,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도, 왜 그들은 바울을 돕기 위해 일어서지 않았는지, 또 진짜 고통 속에 있었던 바울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는지가 나를 흥미롭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이 경험에 관해 썼을 때, 나와 함께 선 자들은 없었으나, 주님은 나와 함께 서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것이 당신에게 필요할 적이 있을 모든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와 함께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그는 거기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방어와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그와 함께 하려는 자가 거기에는 하나도 없었으나, 그 밤에 주님은 오셔서 그와 함께 서 계셨으며,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기운을 내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그가 결코 주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삶 가운데 여러 번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의 지체로부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여러 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니, 당신은 그것에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바울이 정말로, 교회에 의해,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주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의 삶의 어두운 경험 속에서도 그와 함께 서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곁에 서 계셨다는 말이지요. 주님께서 항상 이 어두운 많은 밤에 당신 곁에 서 계실 것이기에, 우리는 때로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낙심과 두려움과 불확실의 시대에, 주님, 당신은 격려하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도우시려고 거기에서 계십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를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오니, 장래로 향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당신에게 예배하는 중에 우리가 주님에게 할 것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